

# 온실가스 배출 6.24억t... 무탄소발전 확대로 전년비 4.4% ↓

환경부, '2023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별 전기·열생산 7.6%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영향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t)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0만t) 감소하면서 제일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



정은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소 발전인 원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740만t)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7%(330만t)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100만t)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농축수산물

문과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한 폐기물 부문은 각 0.1%(1만t) 1.3%(20만t) 등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정은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

했다.

한편,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해당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AI 시대, 쌀 가공식품 발전방향 모색한다

농식품부, 2024 쌀 가공품 품평회 추석 맞이 '쌀플러스 미식회' 진행 소비자 위한 최대 50% 할인 행사

과잉생산과 수요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쌀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쌀 가공산업의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11일 경기 광명 테이크오텔에서 '2024 쌀플러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 가공산업의 발전방향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지난 7월 '2024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 브랜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쌀플러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제17회를 맞이한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24 쌀플러스 제품(10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어 수상 제품 중 성주 황금 꿀 참외떡(요푸트), 바삭집(씨제이제일제당), 명미당 제주오메기떡(우리식품) 등을 개발한 기업에서 수상제품의 개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 푸드 2022) 2022 쌀 가공식품 산업대전이 개막한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관계자들이 우리쌀 가공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스토리를 발표하고 신제품 개발 전략 등을 공유한다.

2부는 주요 인사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먼저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이 '최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쌀 가공식품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인 골든플래닛의 임유담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 쌀 가공식품 제조기업의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유통플랫폼 11번가, 배달의민족, GS리테일, 숭담화(전통주 구독 플랫폼)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쌀 가공식품의 유통 플랫폼 판로개척 노하우를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플러스로 선정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 기간 한정(9월 11~22일)으로 최대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추석 특별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명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소비 증진을 꾀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가공산업이 2022년 국내 매출액 8조 원 달성, 최근 5년간 수출액 2배 이상 증가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포럼이 쌀 가공산업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산업장관 "흔들림 없는 원전정책 추진"

서울대 방문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 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를 계기로 원전 전공생들을 격려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생태계 융자지원을 500억원 증액하고, 유망 원전기업성

장지원 펀드 조성 예산 4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원전산업 지원예산을 2024년 7615억원에서 2025년 7923억원으로 확대했다.

안 장관은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발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인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원자력분야 산학/국제협력 활성화 등 학계 건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진로 모색 방안 등을 토의했다. 나용수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외부 환경과 무관히 우수 원자력 인재를 일관되게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오는 2027년 전북고창에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농식품부, 과산·해남 이어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에 전북 고창군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절임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당 권역에 안정적인 김치 원료(주로 배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 괴산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이 진행 중(2022~2025년)이다. 이번이 3번째로, 고창이 추가됐다. 구축 사업기

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다.

이번에 구축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배추 기준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다. 김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 역할과 수급 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절임배추를 하루 5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배추 농가의 고정 판로 확보와 인근 중소 김치업체에 안정적인 절임배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고창군은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50여 명 정도의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지원분야는 ▲저온저장(예냉 포함) ▲가공(전처리)시설 및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등의 설계비 ▲부지 조성비 ▲시설 건축 및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이다.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의 경우, 배추 절임시 발생하는 염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금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다. 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을 활용할 시 소금, 용수, 폐수발생 비용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

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